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386.6	16.1	118,500	-0.8	-5.6	-11.6	-7.8	82.6	39.6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570.0	21.9	342,000	0.3	-1.2	-3.5	-1.2	4.6	3.8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508.9	6.2	25,000	0.4	-12.3	3.7	12.6	2.4	2.1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1,008.7	10.1	51,200	1.4	1.0	-1.0	19.9	3.3	2.4	0.4	0.3	11.7	13.9
삼성중공업	5,625.9	19.8	8,930	1.5	-0.1	19.7	20.5	56.3	27.9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146.5	11.4	29,350	0.2	0.7	-7.4	-14.1	10.3	17.3	0.9	0.8	9.0	4.3
현대미포조선	2,360.6	13.2	59,100	0.5	3.1	-2.0	-1.5	12.8	9.2	0.5	0.4	3.6	4.8
한진중공업	N/A	3.6	N/A	N/A	N/A	N/A	N/A	N/A	N/A	N/A	N/A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552.9	19.9	94,000	1.7	14.4	-17.9	-12.1	16.6	16.2	2.3	2.0	14.6	13.3
두산밥캣	3,122.8	25.3	31,150	-0.2	0.3	-4.7	-1.1	11.4	10.8	0.9	0.8	7.4	7.6
현대로템	2,048.5	4.0	24,100	1.0	10.0	-14.8	-13.5	31.1	21.2	1.4	1.3	4.5	6.3
하이룩코리아	275.7	47.6	20,250	1.3	14.1	18.1	23.1	9.2	8.4	0.8	0.7	8.8	9.0
성광벤드	334.6	16.4	11,700	0.4	14.1	5.9	2.6	1,034.3	42.0	0.7	0.7	0.1	1.8
태광	315.4	11.9	11,900	0.4	15.0	0.0	1.7	71.1	34.7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012.0	10.0	7,340	1.9	9.1	-16.6	-12.6	-22.0	10.3	0.3	0.4	-0.1	3.9
두산인프라코어	1,569.5	17.1	7,540	0.0	0.0	-7.4	-0.7	5.2	5.4	0.8	0.7	17.7	14.1
HSD엔진	156.3	3.5	4,745	1.6	2.0	-13.9	-10.1	-12.5	N/A	0.7	N/A	-4.7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616.3	16.1	37,100	1.4	1.1	10.3	16.3	54.1	23.4	3.3	3.0	6.1	14.0
한화테크윈	1,639.3	15.1	31,500	-0.9	-3.8	-4.0	-3.1	130.5	25.0	0.7	0.7	0.6	2.8
LIG넥스원	812.9	8.4	36,950	0.3	-2.0	-9.3	0.0	85.1	33.9	1.7	1.3	2.4	3.6
태웅	206.1	4.2	10,300	3.1	3.0	2.0	-1.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26.1	4.2	8,380	-1.2	-2.0	10.6	8.5	-17.7	19.6	3.1	2.6	-16.2	11.4
한국카본	351.7	14.1	8,000	-0.6	-5.2	15.9	13.6	124.6	22.4	1.1	1.1	0.9	5.2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중,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착수...EU와 실무접촉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며, 6월부터 10개국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EU 심사는 사전 접촉 절차가 있어, 현대중공업은 자문사와 함께 지난주부터 실무접촉을 시작.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검토 결과 결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연합뉴스)

Rosneft confirms deal for pilot Arctic 2 LNG carrier

러시아 Rosneft는 Novatek의 Arctic 2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선 초도선 신조를 위해 선주 Sovcomflot과 Zvezda 조선사 간 계약을 승인함. 초도선은 2013년 한국에서 건조되어 Yamal LNG 프로젝트에 사용된 선박과 디자인이 같음. 해당 선박이 러시아에서 건조되는 사례는 처음으로, 발주된 15척이 2022~23년까지 인도될 예정임. (TradeWinds)

Nakilat looks to grow fleet as it shifts into chartering play

카타르 LNG선사 Nakilat은 그리스 Maran Gas와 LNG선 4척을 보유한 Global Shipping이란 JV를 설립함. Nakilat은 2019~21년까지 LNG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 성장을 위해 JV를 통해 선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 동시에 LNG선 뿐만 아니라 FSRU 선대 확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TradeWinds)

황산화물 규제 대비 저유황유 해상비축

S&P글로벌플래츠에 따르면 현재까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해상에서 저유황유 원유와 석유제품 비축물량은 300만톤으로 증가했다고 알려짐. 해상 비축되는 화물은 블렌딩용 저유황중유, 저유황 원유, MGO임. IMO 2020 규제 도입에 따라 2020년까지 저유황유 수요 상승을 기대한 석유기업들이 VLCC를 통해 석유제품 비축에 나선 모습임. (코리아수입가제트)

대우조선, Maran읍선분 3개월 내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확보하고 있는 Maran Gas Maritime의 LNG선 읍선분이 향후 3개월 내에 확정 수주할 전망이다. Maran Gas가 보유한 LNG선 수주잔고는 15척으로, 확정분 13척과 읍선 2척으로 구성됨. 발주처는 카타르 LNG 선사 Nakilat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LNG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며, LNG선 발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선박뉴스)

Mozambique LNG builds its shipping team as FID nears

Anadarko의 Mozambique LNG 프로젝트에서 FID(최종투자결정)가 가까워짐에 따라 LNG 해상운송 팀을 구축하기 시작함. 프로젝트 첫 생산이 예상되는 2023년 또는 2024년까지 팀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임. Mozambique LNG에는 매년 1,288만톤 규모 운송 수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LNG선 16척이 필요할 전망이다. (TradeWinds)

Yang Ming seals deal for boxship quartet with Shoei Kisen

대만선사 Yang Ming은 일본 Shoei Kisen에서 1.1만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추가 용선하기로 결정함. 선박 인도는 2022년 1~9월로 예정됨. Yang Ming은 기존에 그리스 Costamare에서 1.1만TEU급 10척 용선했음. Costamare 선박은 중국 Yangzijiang 조선소, Shoei Kisen 선박은 일본 Imabari 조선소에서 건조, 선가는 각각 1~1.25억달러로 알려짐. (TradeWinds)

현대중공업 임팩, 작년만큼 가시발길 예고

현대중공업 노조는 4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된 뒤 사측에 전달할 방침임. 정확한 상건례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5월 초가 유력한 상황임. 다만 사측이 5월 말 물적분할을 결정할 예정인 만큼 원활한 임단협은 어려울 전망이다. 물적분할은 기존 근로자 처우와 맞물리는 만큼 임단협 성사 여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BN)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4월 12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4월 12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4월 12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